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	기 재 일	2009. 9. 24. (목)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8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 당 자	연구위원 이인형
	연 락 처	02)3771- 0833
	E-mail	ihlee@kcmi.re.kr

※ 통신은 9월 23일(수) 12시, 일간지는 9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9월 23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본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설계,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업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도전과 기회 등,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음.
- 제1세션에서는 나이젤 로슨(현 영국 상원의원, 전 영국 재무장관)이 금융규제 측면에서의 금융시스템 설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페드로 로데이아(맥킨지 아시아 금융기관 그룹 대표)가 향후 금융 환경에 대한 전망과 금융회사들의 대응 및 기회 여건에 대해 발표하였음
- 제2세션에서는 번트 볼크(도이치 은행)가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브라이언 베이커(핌코 아시아 대표)가 자산운용산업의 도전과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음
- 끝으로 제3세션에서는 박연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재설계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감독기관, 학계 및 업계 참석자들에 의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요약]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설계. 끝.

1. 금융규제 측면에서의 금융시스템 설계

Nigel Lawson (Member of House of Lords, Former United Kingdom Chancellor of the Exchequer, 前 영국 재무장관, 現 상원의원)

○ 금융위기의 수습과 맞물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을 생각해 볼 시점임

-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음
- 경기변동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이나 은행위기와 겹칠 경우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 유지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함
- **은행 건전성 유지의 핵심 사항은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임**

○ 시장 참여자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해결된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무너졌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기존의 국가간 및 각국의 금융규제도 이번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

○ 금융산업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정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 (Glass-Steagall) 법이 옹호 했던 인식의 부활이 필요

-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항시적으로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금융기관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이를 위해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 수행을 엄격히 억제하고 규제할 필요**
-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은 예금수탁을 금지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관리 감독하여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며, 이는 간소화된 규제로도 가능

2. 규제 변화와 고객 기호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도전과 기회
Pedro Rodeia (Senior Director, McKinsey & Company)

○ 미래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향방 그리고 투자자들의 위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결정됨

- 규제의 방향은 전 보다 강화된 자기자본규제와 같은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의 지향점을 유지하는 형태와 강력한 규제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은행 시스템 운영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투자자들의 경우도 위험과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는 경우와 반대로 레버리지 및 구조화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드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 전성기의 회복”이며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은행권 부실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 없는 경우

- 종합금융그룹의 영향력 확대와 금융회사들의 몸집 불리기 및 글로벌화 지속
- 은행들의 투자은행 비즈니스 업무로 영역 확대 지속

○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유화, 국지화 및 양극화”이며 은행들의 손실 누적으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계속되는 상황

- 감독기관들은 은행의 전략과 자본구조에 깊숙하게 관여할 것이며 은행들은 상업은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됨
- 한편으로는 고위험-고수익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은행 업무에 특화된 금융회사들이 출현

○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화의 지속, 그러나 업무 단순화”이며 은행 업무가 단순화 및 투명화 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화가 지속됨

3.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업의 미래
Bernd Volk (Director, Deutsche Bank Frankfurt)

○ 투자은행업은 미국, 유럽 모두 한층 강화된 규제 환경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한 자본확충,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제한 및 과도한 차입의 규제 등으로 나타날 전망임

- 미국 FRB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감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며,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과 부채비율 감소에 노력
- EU는 금융시장 안정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금융시스템위험위원회 창설과 개별 금융기관을 감독할 감독기관 연합체 구성을 고려
-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의 강구를 통하여 투자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실제 줄어들지 않음

○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 및 중앙은행 자산의 증가 및 구조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신용평가기관의 감독 강화, 자금시장의 개선이 전망

- 총자산에서 은행간 거래분 및 보유 유가증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자산의 신용도 하락으로 자본확충 필요
- 중앙은행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책수단으로서의 이자율에 근거한 실물경제 지원과 유동성공급을 통한 은행산업 지원의 이원적인 구조 예상
- 신용평가기관과 시가평가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4. 자산운용산업의 도전과 기회

Brian P. Baker (CEO & Director, PIMCO Asia)

○ 글로벌 불균형,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탐욕이 결합되어 나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환경이 급변하게 됨

- 이머징시장의 과도한 저축 및 선진시장의 과도한 소비,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방만한 감시, 창의적인 대출수단의 과도한 양산, 투자자 및 개인의 허술한 위험관리, 정책적인 실수 등이 위기발발의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뱅킹시스템은 공공부문에 의해 구제되었으며,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금융시장 지원이 이어짐
  - · 전례 없는 자산가치의 증발과 함께 역사적으로 높았던 레버리지 수준이 하락하고, 증권화시장이 침체됨
  - · 과거 낮았던 저축률의 증가, 고용의 급감, 안정적 인플레이션 성장기(Great Inflation Moderation)에서 디플레이션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환경이 변화가 자산운용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세계 경제의 안정성장기(Great Moderation)가 종료됨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비즈니스 수익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으며, 비즈니스 모든 수준에서의 예측오류가 증가함
- 규제당사자와 투자자간의 신뢰가 약해짐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었으며, 투명성과 상세한 보고(reporting)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선진화된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임
- 규제목적의 감사(audit)가 보다 빈번하고 상세하게 이루어지며, 상품의 하위분배자에 감시책임이 강화되는 등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됨
- 투자자는 소규모 부티크 자문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고, 규제비용의 증가와 함께 투자자의 요구로 보고 및 위험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의 통합이 활발해짐
- 투자자들은 보다 단순화된 상품과 강화된 투자재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시장(developing market) 투자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서비스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통합된 규제기구,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 감시감독책임자와 산업참가자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규제측면의 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 규모가 크고 접근이 용이한 투자자 기반과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이용하기 쉬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지원서비스, 기술, 상업공간, 사용의 용의성, 거주환경 등의 잘 발달된 인프라와 공정한 조세구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

5. 한국 금융시스템의 재설계

박연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시스템리스크의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일단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기의 영향력과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 금융시스템 설계는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산업, 금융시장, 그리고 규제 및 감독 간의 적절한 연계 및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

○ 시장중심 패러다임 하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수행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역동적이고 활발한 경제에서 IB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기업금융 및 투자자의 증권투자 수요, 그리고 헤지수요에 의한 IB의 성장가능성이 유효한 만큼 IB는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 과도한 차입을 통해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IB 모델은 지지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며, 한국에서 추구하는 모델이 아님
- 전문화된 회사들이 금융투자 지주회사(FIHC), 은행 지주회사(BHC), 보험 지주회사(IHC) 등의 지주회사 산하로 편입되는 형태로 금융기관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주회사간의 경쟁이 전개될 것임

○ 강력한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차이니즈 월을 원칙중심의 규제 내에서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구축

-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개방되고 투명하며 역동적인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구축해야 함
  - · 이를 위해 주식시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축 노력과 함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제공 및 시장안정화 장치의 효과적 운용 필요

· 투자은행 내 전문적이고 수익성 있는 FICC(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y) 부서를 신설하고, MTF와 ATS와 같이 견고한 거래플랫폼을 구축하며, 채권시장간, 은행간시장간, 그리고 외환시장간 연계를 강화시킴

· CP 시장을 강화하고 ABCP 시장 및 MMF 시장을 규제

-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야 함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중앙화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외환시장간, 은행간 시장간, 그리고 채권시장간 연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화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고, 한국의 원화가 완전히 국제화될 때까지 현물시장과 NDF 시장간의 연계를 모니터링 함

-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금융혁신 및 한국형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의 개선 필요

· Nurture PEF, 메짜닌 펀드, SPAC 등의 활용과 함께 녹색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금융의 활성화 필요

○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단계로 봤을 때 규제 및 감독 측면의 정책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은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함

- 한국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및 감독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논의된 사안을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해야 함

· 세계적인 규제적 표준의 흐름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기관을 커버하기 위해 규제의 한도를 확장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며, 시스템 유동성을 개선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식별하여,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섹터, 금융시장간, 금융과 실물경제간, 그리고 국가간 위험전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